

研究論文

#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과 문학사적 의의

강 영 숙\*

I. 서론	V. 결론
II. 열녀전의 시원(始原)과 사회·문화적 환경	<참고문헌>
III. 열녀전의 구성방식	<국문요약>
IV. 구성방식의 변모와 문학사적 의의	

## I. 서론

조선조 여인들에게 수신서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삼강행실도』는 그들에게 필독서로 읽혀져 왔다. 열녀상(烈女像)의 기본정신은 정순·정절에 있으며 문사들은 열녀(烈女)들의 열행(烈行) 양상과 열(烈) 윤리를 실천하는 배경 등을 기술함으로써 바람직한 여인상을 제시하고자<sup>1)</sup> 하였다.

열(烈)이란, 여성이 한 남자를 위해 지키는 끈은 절개이자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일종의 관계방식이다.<sup>2)</sup> 또한 사대부 계층의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과한 윤리규범으로서 남성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열녀(烈女)는 이러한 열(烈)을 수행하는 열녀(烈女)의 개념과 여인열전(女人列傳)이란 열녀(烈女)의 두 가지 의

\* 경북과학대학 강사, 한문학 전공(muyong99@hanmail.net).

1)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 연구」, 『성곡논총』, 30집(성곡학술문화재단, 1999), 95-96쪽.

2) 이숙인, 「열녀담론의 철학적 배경: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보는 열녀」,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월인, 2002), 38쪽.

미로 사용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전자의 의미로서 열녀전(烈女傳)이란 열(烈)을 행한 여인의 전(傳)이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열녀의 의미가 일반 여성들에 대한 제녀적(諸女的) 의미였으나 후대에 오면서 열녀전(烈女傳)의 열녀(列女)는 정절을 강조하며 부덕을 갖춘 열녀(烈女)의 개념으로 쓰고 있어 의미의 전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서(史書)에 열녀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는 『삼국사기』<sup>3)</sup>의 <도미>, <박제상>, <설씨녀>, <석우노> 등에 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열녀(烈女)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도미>, <설씨녀> 등이 수록된 『삼국사기』에는 실제로 열녀(烈女)란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열녀(烈女)란 말은 『고려사』<sup>4)</sup>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세종 때 편찬된 『삼강행실도』에는 <열녀도(烈女圖)>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 사서(史書)나 열녀서(列女書)와는 달리 열녀(列女) 대신 열녀(烈女)를 직접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열녀(列女)와 열녀(烈女)를 모두 수용 변용하여 ‘열녀(烈女)’라고 불렀으며 따라서 열녀(列女)보다 열녀(烈女)에 가까운 열녀상(烈女像)이 더욱 강화되었다.<sup>5)</sup> 이에 열(烈)의 개념은 변고를 만났을 때 자결하거나 타살되던 의미에서 남편을 따라 죽은 순절에까지 이어져 조선조 열녀전에서는 더욱 다양한 열(烈)의 유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조 열녀전(烈女傳)에 대한 연구논저로는 『조선시대의 열녀담론』<sup>6)</sup>이 있고, 연구논문으로는 어느 한 세기나 한 시대의 열녀전(烈女傳)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sup>7)</sup>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열녀전의 한 작품이나 어느 한 측면만 다룬 연구<sup>8)</sup> 등이 있다.

3) 『三國史記』 권45, 46, 48의 <列傳> 참조

4) 『高麗史』 권지131 <列傳>의 <烈女>편 참조

5)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월인, 2002), 15~16쪽 참조

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월인, 2002).

7) 이대형, 「18세기 열녀전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1994); 홍인숙, 「17세기 열녀전연구」, 『한국고전연구』, 7집(2001); 황인옥, 「17·18세기 실학자의 열녀관에 대한 일고찰: ‘이익·박지원·정약용을 중심으로」, 효성여대 대학원 석사논문(1993); 홍인숙, 「조선후기열녀전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2000);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연구」, 『성곡논총』, 30집 1권(1999);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삼강행실도』에서 조선후기 <열녀전>까지」, 『진단학보』, 85호(1998), 165쪽;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연구」, 『국어국문학』, 132(2002); 강영숙, 「조선후기 열녀전의 유형과 의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06).

8) 성현경, 『<열녀함양박씨전>과 <열녀함양박씨전병서>의 구성』(동화문화사, 1981); 임유경, 「이옥의 열녀전 구성방식과 열 관념」, 『조선시대의 열녀담론』(월인, 2002); 김경미, 「열녀전을 통해본 전통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힘입어 조선조 열녀전의 시원(始原)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일별(一瞥)한 뒤에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과 변모를 고구하고 이들 구성방식의 변모와 문학사적 의의를 심도 있게 접근해 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범위는 『문집소재전작품전집』<sup>9)</sup>과 『한국의 열녀전』<sup>10)</sup>에 수록되어 전하는 두 자료집으로 한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간행된 전문학(傳文學) 단행본으로서는 이것이 전부이고 또한 작자와 작품의 출전이 명확하게 기록된 조선조 열녀전이기 때문이다.

『문집소재전작품전집』에는 66편의 열녀전이 수록되어 있고, 『한국의 열녀전』에는 85편의 열녀전이 수록되어 있어 모두 151편이 된다. 다만 이 두 자료집 중에 중복 수록된 열녀전 51편과 『한국의 열녀전』에 수록된 고려시대의 열녀전인 이곡의 <절부조씨전>과 이승인의 <배열부전>의 2편을 제외하고 98편<sup>11)</sup>을 본 연구의 대상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열녀전의 시대 구분은 입전인물보다는 작자가 열

부부윤리의 문제, 『동양한문학연구』, 제16집(2002);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여성학논집』, 12집(1995); 한의승, 「성혼과 송익필의 ‘은아전’ 서술 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25호(2004).

9) 김근태, 『문집소재전작품전집』(계명문화사, 1986).

10) 이해순·김경미, 앞의 책.

11) 강영숙, 앞의 논문, 3~8쪽에서 작품, 작자, 출전, 유형, 계층 등을 자세하게 밝힌 도표 참조. 본고에서는 98편의 작품만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열부최씨전>, <홍절부전>, 성혼의 <은아전>, 송익필의 <은아전>, <삼절부전>, <고오수재평처윤씨전>, <열녀정씨전>, <열부안씨전>, <양열부전>, <이열녀전>, <박랑전>, <최랑전>, <열녀홍씨전>, <열부허씨전>, <열녀송씨전>, <고산삼열부전>, <홍열부전>, <열부전>, <임열부향낭전>, <열부상낭전>, <조절부전>, <열부유인서산정씨전>, <매분구옥낭전>, <열부유인하씨전>, <열부유인한씨전>, <열부이유인전>, <열녀향랑전>, <열부이유인전>, <정열부전>, <하씨여전>, <최홍이녀>, <정씨전>, <열녀계월전>, <열부이씨전>, <이절부김씨전>, <열녀박씨전>, <유열부전>, <염절부전>, <열녀이씨전>, <열부순유인전>, <효열이유인전>, <열녀함양박씨전>, <은애전>, <양열녀전>, <열녀임씨전>, <박열부전>, <절부박씨전>, <열부함양박씨전>, <박열부전>, <상산박씨열녀전>, <신열부이씨전>, <생열녀전>, <상랑전>, <열녀이씨전>, <협효부전>, <삼열부전>, <박열부전>, <절부변부인전>, <김박이열녀전>, <오처자열행전>, <관복열녀전>, <이열녀전>, <기경춘전>, <조열녀전>, <열부이유인전>, <열부한씨전>, <염열부전>, <열부유인이씨전>, <열녀문성유씨전>, <효열부유인윤씨전>, <열부김씨전>, <열부주씨전>, <충효열운씨삼세전>, <열부상산박씨전>, <영남효열부전>, <열부유인양씨전>, <열부유인정씨전>, <열부나씨전>, <열부유인이씨전>, <열부유인이씨전>, <효열부양씨전>, <열부유씨전>, <열부양씨전>, <열녀사비연덕전>, <열부유인윤씨전>, <절부강씨전>, <칠열부전>, <열녀차상민처김씨·박석주처황씨·고준실처송씨전>, <벽열부전>, <절부김씨전>, <전불관전>, <김열부전>, <오문이절부전>, <절부김씨전>, <송열부전>, <홍열부전>, <열부신씨전>.

녀전을 창작한 시기를 기준<sup>12)</sup>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조선전기와 후기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통설이다.<sup>13)</sup> 한편으로 조선 초기·중기·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는 방법<sup>14)</sup>이 제기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앞의 통설에 따라 전후기로 나누었다.

## II. 열녀전의 시원(始原)과 사회·문화적 환경

중국에서 열전(列傳)은 전한의 사마천이 『사기』 「열전(列傳)」을 저술함에 있어 군신과 제자백가의 사적을 전기체로 엮어 각 인물의 일생을 기록하고 논평을 덧붙이게 된 것이 그 효시이다. 이는 후대에 이르러 소설 형성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한국 열녀전(烈女傳)의 형성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삼강행실도』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부분 <후한서>나 <원사>에 기재된 정순 유형의 열녀들이다. 열녀전(列女傳)<sup>15)</sup>의 고본이라 간주되는 유향의 『고열녀전(古列女傳)』 가우본(嘉祐本)<sup>16)</sup>에 나타난 열녀(列女)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순한 유형들이다. 또한 해진 등이 봉찬한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은 조선 태종 4년에 들어와 당시 이를 ‘열녀전’이라고 불러 그 이후 실록이나 문사들 그리고 여성들이 접한 열녀전(列女傳)이 유향의 것인지 해진 등이 편찬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유향의 <열녀전>과 해진 등의 <고금열녀전>이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여성의 절에 대한 관념은 성리학과 맞물려 사대부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념

12) 여기서는 지면관계로 대상작품 98편의 작품명만 소개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강영숙, 앞의 논문, 3~8쪽에 각 작품의 작자, 출전, 유형, 주인공의 신분분류, 도입부 유무, 논평부 유무 등을 도식화한 것 참조.

13) 진단학회, 『한국사: 근세전기편·근세후기편』(을유문화사, 1962), 641~681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탐구당, 1981), 11~125쪽; 변태섭, 『한국사통론』(삼영사, 1986), 102~138쪽;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경세원, 1997), 218~301쪽; 강만길(외), 『한국사』(한길사, 1994), 10~98쪽.

14) 김성우, 「조선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8(1995), 19~68쪽; 김영진, 「조선사회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8(1995), 79~98쪽.

15) 열녀전(列女傳)이라 함은 유향의 『열녀전』 이래 『고금열녀전』·『회도본열녀전』 등을 통틀어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인 것이다.

16)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 선종(1084~1094년) 이전에 유향의 『고열녀전』 가우본(嘉祐本, 1063년)의 수입이 있었다고 추정. 우쾌제, 『한국가정소설연구』(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93쪽.

으로까지 확대 된 것으로 보인다.<sup>17)</sup>

또한 정주학의 전래와 함께 부녀자들의 정절을 최고의 미덕으로 하는 가정윤리가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효자와 열녀(烈女)가 속출하게 된다. 주자학적 예속의 확립과 아울러 교화의 목표로 삼은 것은 집집마다 효순지자요, 사람마다 충신지신이요, 부녀마다 절부를 자칭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충신불사이군이요 열녀불경이부라는 두 가지의 가치관념 중 열녀불경이부에 치중하게 되는 것은 부부윤리가 곧 가정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8)</sup> 따라서 여성의 정절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열녀의 절행을 풍교(風教)의 일환으로 삼아 유학자들의 칭송이 대단했으며 열녀(烈女)들에 대한 많은 열전(列傳)이 나타나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열녀상(烈女像)을 정립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기존 열녀전의 영향을 받아 순절 혹은 수절 등의 형태로 절의를 지켰으니 이는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를 기록한 여성 열전(女性列傳)은 후대에까지 교훈적 열녀담(烈女談)으로 전해온 것이다.

태조 원년(1592)에 대사헌 남재 등의 상소를 받아들여 재가금지를 법제화하였으며 그 후 태종 때 이를 다시 강화하여 양반 부녀자들은 가까운 친척 외에는 남자와 왕래하는 것을 금하고 양반의 이혼은 왕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으며 양반의 정처로 삼가한 자는 자녀안에 기록하게 하여 신분을 종으로 격하시키는 등 많은 규정을 가하게 했고,<sup>19)</sup> 세종 때에는 고금의 충신·효자·열녀 중 규범이 될 만한 인물을 선정하여 『삼강행실도』 편찬 간행시 자료로 취택하였다. 이러한 전례를 부녀와 유아들에게 배우고 익히게 하여 그 중 열행과 효가 탁월한 자에게는 정문을 내려 남너지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sup>20)</sup>하였다. 남녀가 7세가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엄격한 풍습이 이때부터 생겨 두 지아미를 섬기지 않는 관습을 너무나도 당연시했고 열녀로 인한 정문의 하사는 문중의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었다.

광해군 때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열녀(烈女)의 행적을 700여 건이나 수록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열녀는 계속 증가 추세였으며 한편 유교적 여성관은 순종을 미덕으로 하는 종속적 여인상으로 남게 되어 열녀의 행적은 열전(列傳)에

17) 이해순·김경미, 앞의 책, 96~98쪽 참조.

18) 우패제, 앞의 책, 54쪽.

19) 『태종실록』권8, 권11.

20) 『세종실록』권1, 세종 원년 9월.

기록됨으로써 여성열전(女性列傳)의 출현을 보게 된 것이다.<sup>21)</sup>

우리나라 여성열전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석우노>, <박제상>, <설씨녀>, <도미처><sup>22)</sup> 등을 들 수 있으나 본격적인 여성열전은 『동문선』에 수록된 작품인 것으로 보아 고려말엽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사』 <열전(列傳)>의 <열녀(烈女)><sup>23)</sup>편의 개요만 수록한 작품과 이승인의 <배열부전><sup>24)</sup> 이곡의 <절부조씨전>·<죽부인전><sup>25)</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서에 나타난 열녀들의 열행을 보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열녀들은 시련을 이기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여 후대 열녀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의 열녀들은 순간적인 위기에서의 행위가 한결같이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는 등,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열녀전의 변천 과정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8세기 영·정조부터의 열녀전은 근대전환기의 활발한 문풍(文風)에 편승하여 열녀전의 창작이 활성화되면서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조선전기에 비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19세기부터는 근대적인 시대조류에 밀려 열녀전은 점차 줄어들었다가 19세기 말 개화기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초에 이르러 거의 소멸되었다.<sup>26)</sup> 이는 시가문학에서 엽시조나 사설시조 등이 영·정조 때에 활성화되었다가 개화기 이후 쇠퇴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문학발달 과정에서 열녀전의 변천과정과 동례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 III. 열녀전의 구성방식

문학 작품에 있어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방법은 전(傳)의 양식을 통해 발전

21) 우쾌제, 앞의 책, 155쪽.

22) 『삼국사기』 권제45에 <석우노>, <박제상>, 권제48에 <설씨녀>, <도미처>가 수록되어 전함.

23) 『고려사』 「열전」의 <열녀>편에, <호수처유씨>, <현문혁처>, <홍의처>, <안천검처>, <강화삼녀>, <정만처취씨>, <최동교처배씨>, <강호문처문씨>, <김언경처김씨>, <경덕의처안씨>, <이득인처이씨>, <권김처> 등 12편.

24) 『동문선』권100.

25) 『가정문집』권1, 잡저.

26) 강영숙, 앞의 논문, 55-63쪽 참조.

을 보게 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명인들의 일대기를 행적에 따라 기록하는 공식적 서술 형태인 역사적 기록물로 ‘사전(史傳)’이 주가 되었으나 그 외에도 가문의 전통을 잇기 위한 ‘가전(家傳)’을 비롯하여 자신의 일대기를 타인의 것과 같이 의탁하여 기록한 ‘탁전(托傳)’이 있으며, 문인들의 손에 의해 개인적 의도와 취향에 따라 ‘사전’의 형식에 의거하여 그 규범을 준수하고 동·식물, 심성, 기타 사물을 의인하여 창작한 ‘가전(假傳)’ 등 4전(傳)이 있다.<sup>27)</sup> 열녀전은 사전적(史傳的) 성격을 띠면서 개인적 창작<sup>28)</sup>욕구에 의해 서술된 것으로 전의 구성을 지닌 작품<sup>29)</sup>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중국 전한의 사마천이 군신과 제자백가의 사적을 전기체(傳記體)로 인물의 일생에 대해 저술한 『사기』 「열전」체의 4단락<sup>30)</sup> 구성의 구성방식에서 온 것이다. 조선조 열녀전의 대다수 작품은 『사기』 「열전」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조선조 열녀전의 전통적인 구성방식의 기원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단락 구성방식은 당시 즐겨 읽고 써 왔던 한시에서 절구의 기·승·전·결과 율시의 기·함·경·미의 구성에서도 다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조의 열녀전 대다수와 고려시대의 열녀전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체를 답습하면서 한시의 4단락 구성에 힘입어 형성되었다. 이처럼 고래(古來)로부터 이어온 4단락 구성의 열녀전의 구성방식을 ‘정격구성’이라 하고 이러한 정격구성의 열녀전을 ‘정격열녀전’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근대적인 사고가 문학작품에 반영되어 문학 장르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18세기 근대전환기<sup>31)</sup>부터는 다양한 양상의 장르가 파생되기 시작했으니 예컨대 시가와 소설에서 사실시조, 장편국문소설, 판소리, 판소리계소설 등의 새로운 문학양식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근대적인 사상으로 기존의 고식적인 사고나 전통을 깨뜨리고 새로운 문풍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27) 김광순, 「한국의인문학의 사적 계보와 성격(上)」, 『어문학』, 16(한국어문학회, 1967), 133~135쪽.

28) 소재영, 「전의 근대문학적 성격」, 『근대문학의 형성과정』(문학과 지성사, 1983); 조태영, 「전 양식의 발전 양상에 관한 연구」, 『국문학연구』, 61(서울대 대학원, 국문학연구회, 1983). 이정우, 「문집소재 전의 변모양상」, 『한국판소리고전문학연구』(아세아문화사, 1983).

29) 우폐재, 앞의 책, 참조.

30) 이하부터 ①은 열녀전의 도입부, ②는 서두부, ③은 전개부, ④는 결말부, ⑤는 논평부를 뜻함. 여기서 4단락이란 『사기』 「열전」체의 의미기능 단락으로 ② 서두부, ③ 전개부, ④ 결말부, ⑤ 논평부로 구성된 4단락을 말함.

31) 김광순, 『고소설사』(새문사, 2006), 95~118쪽 참조.

편승하여 열녀전의 구성방식도 기존의 전통적인 4단락 구성에서 5단락으로 확대, 혹은 3단락으로 축소되는 구성방식으로 변모된 구성의 열녀전이 나타나는 등 조선후기 열녀전의 구성방식도 변모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근대적인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기존 열녀전의 구성방식인 ‘정격구성’에서 변모된 구성방식을 ‘변격구성’이라 하고, 변격구성의 방식에 따라 창작된 변격구성의 열녀전을 ‘변격열녀전’이라 명명하였다.

때문에 조선후기 열녀전 가운데 ① 도입부가 있고, ② 서두부, ③ 전개부, ④ 결말부, ⑤ 논평부가 있어 4단락 구성의 정격열녀전에서 벗어난 5단락의 구성방식인 변격열녀전<sup>32)</sup>이 등장했고, 또한 ①의 도입부와 작품 말미의 ⑤의 논평부가 생략된 3단락의 구성방식인 변격열녀전<sup>33)</sup>도 등장하였다.

### 1. 정격구성

한국 문헌에서 열녀(烈女)를 본격적으로 입전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엽 가정 이곡의 <절부조씨전>과 도은 이숭인의 <배열부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의 구성은 모두 4단락의 구성방식인 정격구성을 답습한 정격열녀전이다. 이와 같은 4단락 구성방식은 전술한 사마천의 『사기』 「열전」 체에서 기원하여 고려 때의 <절부조씨전>과 <배열부전>의 구성방식이 모두 4단락으로 구성되었고, 조선전기의 열녀전도 이에 영향을 받아 4단락의 구성방식으로서 정격구성으로 입전되었으며, 조선후기 열녀전의 대부분 작품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한국 열녀전의 전통적인 구성방식은 4단락 구성의 정격구성 열녀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전기의 열녀전인 정이오<sup>34)</sup>의 <열부최씨전><sup>35)</sup> 강희맹의 <홍절부전>, 성혼

32) 나해봉의 <이열녀전>, 이옥의 <상랑전>, 이정암의 <삼절부전>, 홍석주 <관복열녀전>, 홍직필 <기경춘전>, 조구명 <매분구옥낭전>, 서경창 <영남효열부전>, 윤광소 <열녀향낭전>, 전병순 <열부상산박씨전>, 정범조 <정씨전>, 조재도 <열녀계월전>, 박윤원 <유열부전>, 김양근 <열녀이씨전>, 박희전 <상산박씨열녀전>, 신수이 <열부유인서산정씨전>, 박지원 <열여함양박씨전> 등 17편.

33) 이영인의 <바랑전>과 <최낭전>, 김기홍의 <열녀허씨전>과 <절부허씨전>, 성해응의 <삼열부전>, 정재필의 <열부유인이씨전>, 김택영의 <열녀차상민처김씨·박석주처황씨·고준실처송씨전>, 황현의 <백열부전> 등 8편.

34) 호는 교은, 자는 粹可, 본관은 진주, 고려 공민왕 때 文科에 급제하여 조선조 태종 10년(1410) 태



의 <은아전>, 송익필의 <은아전> 등 4편 모두가 정격열녀전이다. 이러한 정격구성방식의 체재를 답습한 조선조 최초의 열녀전은 항절형 유형의 열녀전인데, 이들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열부최씨전>은 ②의 서두부에서 최씨의 가계, 어려서의 행적과 시집간 뒤의 행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첫 부분을 보면,

열부의 성은 최씨이고 이름은 아무개로 영광군 사람인데, 진주로 옮겨 산 것이 어느 조상 때부터인지 알 수 없다. 도염서승 인우의 딸이며 진주호장 정만의 아내로 아들 딸 네 명을 낳았으니 그 중 한 명은 아직 강보를 벗어나지 못했다...<sup>36)</sup>

라고 하여, ①의 도입부에서 나타나는 창작동기와 입전 의도는 보이지 않고 최씨의 가계와 행적을 설명하는 ②의 서두부로부터 시작한다. 왜적이 침략하여 재물을 약탈당하는 것이 ③의 전개부이다. 왜적이 열부 최씨를 끌고 가려 하자 의로운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며 왜적들을 꾸짖다가 살해당하며 자녀 셋은 사로잡히고 짓밟히며 막내는 죽은 열부의 젖을 찾아 물다가 입에 피가 흘러들어 열부와 함께 죽고 만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아뢰어 동리에 정려문을 세웠다는 것이 ④의 결말부이다. 왜놈들에게 더럽히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저항하다 삶을 마친 열부 최씨는 대장부보다 높은 기개라고 하는 작자의 논평부로서 ⑤단락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곧 창작동기와 입전 의도를 밝히는 ①의 도입부 단락은 없고 ②의 서두부로부터 작품이 전개되는 4단락의 정격구성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강희맹의 <홍절부전>을 보면, 창작동기와 입전의도를 밝히는 ①의 단락 없이 바로 입전 인물의 가계를 이야기하는 ②의 서두부에서 홍씨와 시집의 가계, 홍씨의 성품과 성정을 언급하고, ③에서는 홍씨의 남편이 죽게 된 경위와 열의 표출을

조실록 수찬에 참여, 이듬해 검교관한성부사로서 승문원 제조를 겸임하였다. 1413년에 예문관대제학이 되어 지공거를 겸하였으며, 찬성사에 이르렀다. 만년에 저술에 심취하였다. 시호는 문정(『교은집』, 『세종실록』, 『국조인물지』) 참조

- 35) 정이오, <열부최씨전>, 『동문선』. 이 작품은 『동문선』과 『고려사』권지 121, 「열전(列傳)」권제34 「열녀(烈女)」편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혜순의 『한국의 열녀전』에 고려시대 열녀전으로 러말·선초의 학자이기에 본 연구의 대상 작품으로 다루었다.
- 36) “婦姓崔名某 全羅道靈光郡人 移居晉州 蓋不知自何世也 都染署丞仁祐之女 晉州戶長鄭滿之妻 生子女四人 其一未脫襁褓中...”(정이오, <열부최씨전>).

간결한 대화체로 서술하고, 홀로 된 후 집안의 행사나 화재가 나도 신주 옆을 떠나지 않은 열부로서 죽은 남편에 대한 지극정성을 다 하는 장면을 잘 서술하고 있다. ④의 단락에서는 홍씨가 죽은 남편과 대화를 하는듯하면서 세상을 마치는 모습과 정려를 받은 과정을 그리고 있다. ⑤의 논평부에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상도를 지키기 때문이라며 그 도를 밝아 실천하는 자는 수천 수백에 하나다”<sup>37)</sup>라고 극찬하는 4단락의 정격구성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앞의 ③단락과 ④단락에서 장면 극대화의 기법이나, 홍씨 남편이 죽는 과정과 홍씨의 열행을 대화체로 서술하는 기법 등은 전대의 고식적인 정격구성의 기교로 보인다. 조선후기 열녀전도 ①의 도입부 단락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정격구성 열녀전이 주류를 이룬다.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은 조선전기는 모두 정격열녀전이고, 조선후기 열녀전 94편 가운데 73편으로 78%이니 3분의 2 이상이 4단락의 구성방식인 정격구성의 열녀전이다.

조선후기의 이옥 작품 중 <열녀이씨전>·<생열녀전>·<협효부전>은 열녀 또는 효부라는 것을 제목으로 내세운 정격구성으로서 인물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고, 특히 서경창의 <영남효열부전>과 유사한 이옥의 <협효부전>에서 ③의 전개부 단락에 나타난 ‘再嫁 삽화’와 ‘탈출 삽화’는 전기소설의 모티프나 민담의 구성에도 흔히 볼 수 있다. ④의 결말부에는 열녀와 호랑이와의 ‘만남과 헤어짐’의 삽화로서 시어머니께 절한 후 다시 호랑이에게 나아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어 구성상의 묘미와 함께 비장미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삽화는 민담이나 전기소설에 흔히 볼 수 있는 삽화이다.<sup>38)</sup> 이는 사실의 기록이어야 할 傳이 허구적인 사건과 삽화로 연결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긴장과 이완이 되풀이되어 비장미를 느끼게 하고 작자의 창의성과 갈등이 나타나 있어 傳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가는 변모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⑤의 단락에서는 호랑이의 영물성과 효를 칭찬하는 傳奇叟의 구연자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효행의 생활화를 위한 교술성과 효행이라는 유교의 전통적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신비로운 체험적 요소를 수용한 것으로 유교적 이념과 불교의 포교를 위한 입전의 경우만 이런 신비한 체험적 요소의 수용이 많다. 이옥의

37) “噫 人之異於禽獸者 以其有彝倫也 秉彝之天 在富貴不爲有餘 在孤窮不爲不足 然能踐履無愧者 千百中一二耳”(강희맹, <홍절부전> 논평부).

38)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소설연구』(이화문화사, 1995), 26~115쪽.

傳에 도입부와 종결부를 통한 서술자의 개입이 심한 것은 그 전개부가 그만큼 다른 양식의 체재들을 수용하고 허구적인 문학의 취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가 허구적인 서사문학의 세계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대부로서 허구적인 서사문학 세계에의 관심은 조선조 후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충분히 수공되는데 이옥의 이러한 전은 양식적 해체가 아닌 전 양식의 내재적 체질의 변모로 서사 공간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옥의 전이 소설로서 구성상 다소 결여된 점은 있으나 이미 소설로 간주하는 것<sup>39)</sup>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전자의 작품에서 나타나듯 전통적인 4단락 구성방식의 고정체계 면인 정격열녀전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을 효시로 하여 고려시대의 정격 열녀전을 거쳐 조선 전기와 후기의 정격구성의 열녀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4단락 정격구성방식으로 그 맥락을 이어 왔다. 그러나 이옥의 작품에서 보여주듯 조선후기의 정격구성방식의 열녀전은 같은 뿌리에서 출범했지만 조선전기의 정격구성 열녀전에 비해 근대적인 성향과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변격구성

변격구성의 열녀전은 ① 도입부 ② 서두부 ③ 전개부 ④ 결말부 ⑤ 논평부<sup>40)</sup>가 있어 전통적인 4단락의 정격구성 열녀전에서 벗어나서 5단락으로 확대된 변격열녀전이 있고, 또한 ①의 도입부와 ⑤의 논평부가 생략된 ② 서두부, ③ 전개부, ④ 결말부의 3단락으로 축소된 변격열녀전으로 다시 양분되어 나타난다. 앞의 구성방식을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이라 하고, 뒤의 경우를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sup>41)</sup>이라 명명하였다.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은 당시 서사문학에 주류를 이루었던 한문소설이 장편 국문소설, 판소리계소설이 출현하는 등 당시의 문풍을 주도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다른 장르에 편승하여 기존의 정격열녀전이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으로

39) 김군태, 「이옥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7), 43쪽; 김광순, 『고소설사』(새문사, 2006), 372쪽.

40) 이하부터 ‘5단락’이란 ‘5개의 의미기능 단락’이라는 말의 준말로 쓰기로 했다.

41) 앞의 각주 28)번 참조.

변모되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은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는 고소설의 5단락<sup>42)</sup>과 대비해 보면, 이러한 5단락 변격열녀전<sup>43)</sup>의 생성은 근대전환기의 한국 고소설의 전개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후기의 <향낭전>을 살펴보면, 여주인공의 이름은 상낭 혹은 향낭으로 불리어졌다. 향낭을 입전한 사람은 이광정, 김민택, 윤광소, 이옥이다. 이들 네 사람은 같은 주인공인 향낭을 입전하면서 구성방식을 달리 하고 있다. 앞의 두 사람의 열녀전은 ①의 도입부를 빼고 4단락의 ‘정격구성열녀전’인데 비해, 뒤의 두 사람의 작품은 4단락 정격구성의 구성방식에서 도입부 ①이 삽입되어 5단락의 확대변격구성 열녀전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니, 양자 간에 체제의 변모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앞의 두 사람은 17세기를 전후하여 활동한 사람인데 비해 뒤의 두 사람은 18세기에 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앞의 두 사람은 전대의 양식대로 4단락 ‘정격열녀전’의 구성방식의 체제를 따랐고, 뒤의 두 사람은 변모된 5단락의 ‘확대변격열녀전’의 체제를 따랐다. 같은 주인공 향낭을 입전하면서도 이처럼 열녀전의 구성 체제를 다르게 적용한 것이다. 앞의 두 사람은 영조 이전에 활동한 사람이고, 뒤의 두 사람은 그보다 한 세기 후대의 사람으로 영·정조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다. 이광정, 김민택의 경우는 열녀전을 ②의 서두부로부터 시작하여 ③의 전개부와 ④의 결말부 ⑤의 논평부로 기존 4단락의 구성방식인 정격구성을 따르고 있어 ②—③—④—⑤단락인 4단락 체제의 정격구성의 열녀전인데 비해, 윤광소, 이옥의 경우는 ①의 도입부, ②의 서두부, ③의 전개부, ④의 결말부, ⑤의 논평부로서 5단락을 모두 갖추어서 ①—②—③—④—⑤단락의 구성방식인 확대변격열녀전이다. 앞뒤 두 사람 사이에는 약 1세기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앞의 두 사람보다 뒤의 두 사람은 근대적인 시대조류에 따라 더욱 구체적이고도 보다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문학사 발달과정에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옥의 <상낭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5단락의 확대변격열녀전의 의미

42) 소설의 5단락은 ① 도입→② 전개→③ 갈등→④ 크라이맥스→⑤ 대단원.

43) 5단락 변격구성 열녀전은 ① 도입부는 작자의 저작 동기와 입전의도를 밝힌다. ② 서두부는 대개가 열녀와 남편의 가계 혹은 성품 및 행적을 언급하고 있다. ③ 전개부는 남편의 득병으로 열녀의 헌신적 간호, 혹은 갑작스레 남편이 죽는 경우이다. ④ 결말부는 함께 자결을 하거나 혹은 자결하려다 실패하고 다시 가사에 전념하는 경우이다. ⑤ 논평부는 작자가 주인공에 대한 찬사나 열녀의 행위에 대한 논평이다.

기능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며 시경의 백주시와 용풍을 이야기하였다. 청화외사씨왈이라고 하며 전의 도입부에서도 작자의 논평이 언급되고 있다.
- ② 상냥 박씨는 선산에 사는 최씨에게 시집갔다. 남편은 성품이 거칠고 철이 없어 아내를 용납하지 않았다. 시집에서도 쫓겨나 친정으로 갔다가 친정에서 개가시키려 하자 다시 최씨에게 갔으나 최씨도 시부모도 받아들이 주지 않는다.
- ③ 상냥은 낙심하여 물에 빠져 죽기로 결심한다. 낙동강으로 가다가 이웃에 사는 뽕나무하는 아이와 마주치게 된다.
- ④ 상냥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자신의 죽음에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산유화가’를 부른 뒤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에 뛰어 들자 쓸려 내려갔다.
- ⑤ 상냥이란 여자는 시골 사람으로 순종의 가르침과 경전의 가르침을 배운 적이 없었으나 그가 이룬 것은 저처럼 우뚝하다. 바탕이 순수한 사람은 꾸미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인데 이가 바로 박씨의 딸이로다. 44)

이 작품의 구성방식은 4단락 정격열녀전에서 ①의 도입부가 한 단락이 더 삽입되어 5단락으로 변모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5단락으로 확대 변모된 변격열녀전은 모두 16편으로 정격열녀전의 고정 체계 면에서 탈피하여 작자가 독자에게 열녀전의 창작동기와 창작의도를 자세하게 서술하는 ①의 도입부 단락이 첨부되어 있어서 독자의 상상력이나 감상의 범위를 한정해 준다. 작품에 따라서는 길게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흥미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정격열녀전에서 벗어나서 5단락으로 변모된 5단락 확대변격 열녀전의 출현은 당시의 근대적인 문풍으로 보아 한국서사문학 발달과정에서 당연한 결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서사 내용보다 도입부나 종결부에서 작자의 주장이 강조되고 있어 독자가 자유롭게 감상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한다. 때문에 작자의 창작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연히 도입부나 종결부의 주장

44) 이옥, <상냥전>, 『담정총서』; 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415~418쪽.

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당시 근대적인 사고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크게 성행한 고소설을 비롯하여 당시 활발했던 문품의 영향을 받은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사실의 기록이어야 할 전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이 변격구성의 열녀전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의미기능 단락에 따라서 이 작품의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왕조가 들어선 지 400년 이래 여인들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수절하여, 자손들이 벼슬에 임명되지 못할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아닌데 (중략) 열은 열이나 지나치다. 옛날에 높은 벼슬자리에 있던 형제가 어떤 사람이 청직에 나가는 길을 막으려고 어머니 앞에서 그 일을 의논하다가 어머니가 (중략) 과부의 아들이 어찌 과부를 논하느냐고 하며 품속에서 동전을 한 닢 꺼내었다. 그리고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었다. (중략) 모자는 서로를 붙들고 울었다. 그 어려운 절조와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죽어서만이 절조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박씨의 딸로 집안이 대대로 현의 아전이다. 아버지는 상일이며 일찍 죽었고 딸 하나를 두었다. 조부모의 손에서 자랐는데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
- ③ 19살에 시집가서 함양 임술중의 아내가 되었다. 박씨는 혼인날을 몇 달 앞두고 술중의 병이 골수에 들어 (중략) 조부모가 몰래 타일렀으나 들으려 하지 않고 (중략) 그대로 혼인을 거행하였다. 박씨는 시부모를 섬기는 데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여 함양과 안의 두 고을에 칭찬이 자자하였다.
- ④ 술중은 본래 허약한 사람으로 초례를 치르고 반년도 못 되어 죽었다. 박씨는 삼년상을 마치고 독약을 타서 먹고 죽었다. 그 뒤 함양군수 윤광석이 밤에 꿈을 꾸고 느낀 바 있어 열부전을 지었고 거창의 신돈항은 박씨를 위해 시말을 써 주었다.
- ⑤ 상복을 입고 죽지 않았던 것은 장례를 치를 일이 있어서였고 장례를 치르고도 죽지 않았던 것은 소상이 있어서였고 소상 뒤에도 죽지 않았던 것은 대상이 있어서였다. 대상을 다 끝내고 죽었으니 남편과 한날한시에 죽으니 열녀로다.<sup>45)</sup>

<열녀함양박씨전>은 5단락으로 변모된 확대변격열녀전으로서 당시 문풍의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4단락의 정격열녀전의 구성방식에서 확대 변모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으로 변모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①의 도입부에서는 창작 경위와 입전 의도가 잘 밝혀져 있다.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은 전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서문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제목 아래 并序라 하여 작자가 서문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작품은 ①—②—③—④—⑤의 단계를 밟은 구성방식임을 알 수 있는데 ①단락에서는 수절과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열절(烈節)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절녀의 행적부분도 기존의 열녀전에서 보이는 예를 찾기 어렵다. 전문자의 입장을 밝히는 찬(讚)만이 일반적인 전의 양식과 유사할 뿐이다. 연암의 작품에서 논평부의 기술은 대체로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작자의 입장에서 재 정리해 보는 논증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감개 토로의 형식으로 열녀 박씨의 사려 깊음을 칭찬하고 있다.<sup>46)</sup> 연암은 <열녀함양박씨전>을 통해 수절의 어려움에 대한 인간적 고뇌의 실상을 직접 과부의 목소리로써 독자에게 들려주어 열(烈)에 대한 관념의 허상을 부수고 인정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작품의 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박씨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연암의 이 작품을 문학사에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허구적인 서사와 소설적 창작정신에 입각한 작품<sup>47)</sup>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조 열녀전의 변격구성방식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래로부터 전승된 4단락 정격 열녀전에서 3단락으로 축소 변모된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sup>48)</sup>의 출현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이영인의 <박랑전>과 <최낭전>은 창작동기와 입전 의도인 ①의 도입부 단락은 없고, 열녀의 죽음을 칭송하는 작자의 논평 부분인 ⑤의 단락도 생략된 3단락의 구성방식으로 축소된 변격열녀전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전기의 열녀전 모두가 4단락의 구성방식으로 정격열녀전임에 비해 3단락으로 축소된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은 문학사적으로 보아 혁기적인 변모라고 할 수 있다. 이 작

45) 박지원, <열녀함양박씨전>, 『연암집』; 이혜순·김경미, 앞의 책, 309~315쪽.

46) 이동근, 「조선후기 실존인물의 ‘사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9), 77~83쪽 참조.

47) 김균태, 『이옥의 문학기론과 작품세계의 연구』(창학사, 1986), 164쪽 참조.

48) 앞의 각주 28)번 참조.

품은 ② 서두부, ③ 전개부, ④ 결말부로서 3단락의 축소변격구성방식으로서 열부가 행한 사건만 다루고 있다. 이는 정격구성의 열녀전에서 시대조류에 따라 변모된 양상을 잘 보여주는 변격구성방식으로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박랑전>과 <최낭전>의 시작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② 박낭자는 양가집 딸로 선화이다. 아버지가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시지 않자 부친이 취해서 돌아오실 것을 알고 아버지의 저고리를 가지고 나가 보니 십리쯤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셔서 아버지께 옷을 덮어 드리고 새벽녘에 함께 들어왔다(③의 전개부는 생략).

④ 그녀는 자신이 더럽힘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왜적이 풀어놓은 칼을 입에 물고 스스로 엎어지니 칼날이 뇌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었다. 왜구가 물리간 뒤 시신을 거두어 보니 온몸에 칼자국이였다.<sup>49)</sup>

② 최낭자는 선비 모씨 집의 종이였다. 대장장이 한충남의 아내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성격이 허망되고 남을 업신여기기를 잘하여 낭자를 힘들게 했으나 낭자는 화평하게 대하였다(③의 전개부는 생략).

④ 정유년에 왜적이 쳐들어와 남편이 피살되었는데 낭자의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강제로 끌고 갔다. 낭자는 왜적이 깊이 잠들기를 기다려 그들의 칼을 취해 왜적의 목을 잘라 죽인 후 드디어 도망하여 돌아와서 남편의 시신을 찾아 염습하고 무덤 곁에서 스스로 목 베어 죽었다.<sup>50)</sup>

앞에서 보인 두 작품은 각각 3단락의 ②—③—④ 구성으로 변모된 ‘3단락 축소 변격열녀전’의 ②—④ 단락만 예로 보인 것이다. 이는 4단락의 정격열녀전 방식에서 논평부가 없는 3단락으로 축소 변모된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전기 정격열녀전의 구성방식은 ②—③—④—⑤의 4단락의 정격구성으로 형성된 데에 비해서, 조선후기의 열녀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①의 도입부, ②의 서

49) ② 朴娘子 卽州良家女也 名善化 父往墟 日昏不返 娘料其父必醉還 或慮中路顛沛 時大寒 娘以其所持衣覆其父 守其傍 達夜及曉共歸. ④ 娘自其必不免汚 適賊解劍 置其傍 遂乘間圍啣劍自仆 刃出於腦而死 賊退 家人往收 遍體有劍斃 蓋賊怒其不從而死 亂刺而泄其憤也(「박랑전」은 ②—③—④ 단락이 전부이다).

50) <최낭전>은 ②—③—④ 단락이 전부이다.



두부, ③의 전개부, ④의 결말부, ⑤의 논평부의 5단락 서사 방식으로 변모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과 ②의 서두부, ③의 전개부, ④의 결말부만 있는 3단락의 구성방식으로 변모된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이 파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격열녀전은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과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으로 兩分되고 있음이 입증된다.

#### IV. 구성방식의 변모와 문학사적 의의

조선후기부터 근대적인 성향과 문예의 발흥으로 서사문학의 다양한 발전과 창의성에 힘입어 서민의식이 대두하여 중세적인 요소는 사라져가고 근대적인 요소가 맹아하기 시작했다. 임·병 양란으로 인한 수난의 역사는 봉건주의 체제하에 있었던 당시 양반 사대부들로부터 일반 민중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각성과 의식을 불러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자체의 역량도 중세적인 의식에서 근대적인 의식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 걸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문학에 있어서도 양반 주도의 문학에서 서민 주도의 문학으로, 비현실의 사건을 소재로 하던 전기적(傳奇的)인 표현에서 현실의 사건이나 허구적인 사실을 소재로 하는 사실적(寫實的)인 표현으로 근대적인 성격을 지향하려고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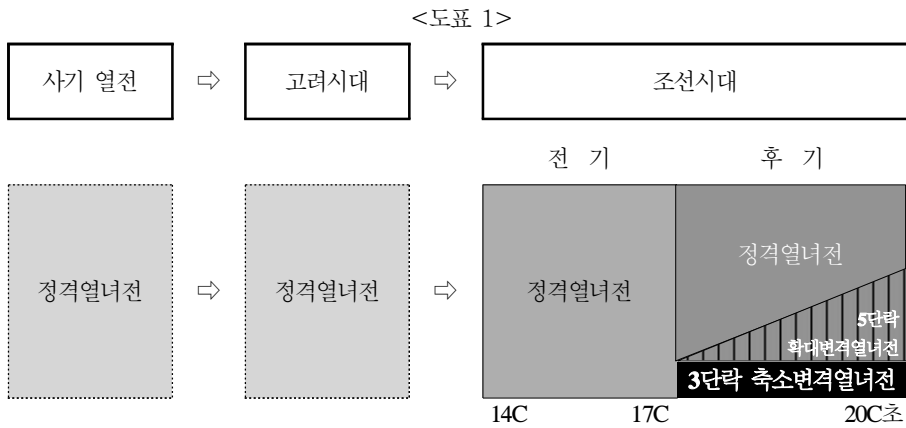
영·정조 이후부터는 문학 장르가 다양한 문풍으로 바뀌거나 크게 활성화되는 획기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우리 문학사에서도 새로운 기풍이 일기 시작했다. 조선후기의 변격열녀전의 출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18세기 영·정조 시대부터는 정치, 사회, 문화면에서 실학의 영향으로 문풍이 발흥하여 열녀전의 작자도 문예미학적인 창의성에 편승하여 사실의 표현인 전이 허구화로 변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조에서 파생한 엮시조와 사설시조의 등장과 서사문학도 한문소설에서 장편 국문소설, 판소리계소설, 판소리의 등장 등 새로운 양식으로 변모 파생된 작품이 나타난 것처럼 열녀전도 전술한 바와 같이 이에 편승하여 조선전기의 구성방식이 정격구성인데 반하여, 조선후기의 열녀전 가운데 정격구성의 열녀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에 벗어난 변격구성의 열녀전이 나타났으니 이는 우리 문학사의

발달과정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변화이며 자연스런 현상이다.

조선후기 열녀전 94편 가운데 4단락 구성방식인 정격구성의 열녀전에서 벗어난 변격구성의 열녀전이 25<sup>51)</sup>편으로 조선후기 열녀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격구성 열녀전은 조선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시 5단락으로 확대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과 3단락으로 축소된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이 나타난다.

조선후기 열녀전 94편 가운데 27%로 3분의 1이 넘는 25편이 ‘변격열녀전’이다. 18세기 영·정조부터 문학 전반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서사장르와의 혼효되는 등 활발하게 전개된 문풍에 편승하여 변격구성방식으로 창작됨으로서 25편의 변격열녀전이 출현하게 된다. 이중에 17편의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과 8편의 ‘3단락 축소 변격열녀전’의 출현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열녀전의 사적 변모양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앞의 <도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열전」에서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전기의 열녀전을 동일한 색감으로 표시한 것은 열녀전의 구성방식이 4단락 정격구성의 열녀전임을 의미하며 조선후기의 열녀전은 조선전기보다 짙은 색으로서 조선후기의 열녀전이 전기의 열녀전보다 근대적인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조선후기 열녀전은 4단락 정격구성의 열녀전이 주류를 이루는

51) 강영숙, 앞의 논문, 6쪽. 43번 <열녀함양박씨전>의 도입부 ×는 ○의 오자(誤字)임.

한편, 전기와는 달리 근대적인 의식구조를 보다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변격구성의 열녀전은 조선후기에 출현하여 후대로 갈수록 변격구성의 열녀전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변격구성의 열녀전은 다시 ‘5단락의 확대변격열녀전’과 ‘3단락의 축소변격열녀전’의 두 가지로 양분되고 있음을 <도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작품의 창작 동기와 입전의도를 밝힌 도입부와 작자가 작품을 평가하고 열행에 대한 작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논평부가 말미에 첨부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독자의 관점이 개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격열녀전에 비해 작자의 창작 동기가 보다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곧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의 특징이다. 후자는 도입부와 논평부가 없기 때문에 서두부→전개부→결말부만 남은 구성으로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독자들이 작품 감상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확대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 기존의 정격열녀전이나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과는 다른 변별성이 있음을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격열녀전의 구성방식은 고래로부터 전승된 4단락의 정격구성으로 도입부가 없다. 그리고 변격열녀전 가운데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은 작자가 작품의 창작 동기나 입전 의도를 도입부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고, 작품 말미의 논평부에서 작자가 열녀에 대한 논평을 당시 유행하던 고소설의 주체처럼 권선징악의 시각으로 작자의 주장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독자가 그 사이에 끼어들기가 어려운데 비해,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은 작자의 창작 동기나 입전의 계기를 서술하지 않고 또한 작자의 논평부도 없으므로 하여 독자에 따라서는 창작 동기나 입전의도를 자의대로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열녀의 열행에 대해 독자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를 ‘닫힌 구조’, 후자를 ‘열린 구조’라고 했다.

이는 조선후기 특히 영·정조 이후의 열녀전은 허구적인 에피소드의 삽입으로 근대적인 사회상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작자의 서술의식과 창의성이 드러나면서 전의 사실성에서 벗어나 사실의 기록이어야 할 전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어 나타나고 있어 우리 문학사발달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전의 소설화 여부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아직도 전과 소설의 구분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52)</sup>

열녀전에 있어 허구적인 삽화의 개입으로 변모 발전된 작품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 서경창의 <영남효열부전>, 이옥의 <협효부전>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인물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재가삽화’와 ‘탈출삽화’, ‘열녀와 호랑이의 대결삽화’, ‘기봉삽화’, ‘서몽삽화’는 기봉소설 등에서 볼 수 있는 기법으로서 사실의 기록이어야 할 전의 성격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사실의 기록이어야 할 전이 허구적인 사건과 삽화로 연결되면서도 독자로 하여금 긴장과 이완이 되풀이 되어 비장미를 느끼게 하고 작자의 창의성과 갈등이 나타나는 것 등은 전이 소설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일단을 의미한다. 이는 열녀전이 조선 후대로 내려오면서 정격열녀전도 허구적인 사실을 수용하여 전의 소설화 양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조선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에서도 수절한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여 열녀제도에 대해 회의를 가지도록 하면서 당시 열녀에 대한 작자의 부정적인 시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열녀관의 변모에서 전이 소설화로 가는 의미를 부각시켜 문학사적으로 크게 주목된다.

향낭을 주제로 한 이광정의 <임열부향낭전>, 김민택의 <열부상낭전>, 윤광소의 <상낭전>, 이옥의 <상낭전>의 경우에서도 전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네 작품은 모두 4명의 다른 작자가 같은 주인공인 향낭(상낭<sup>53</sup>)을 입전하면서 4단락인 정격구성과 5단락의 확대변격구성으로 양자 간에 구성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광정의 경우 <임열부향낭전>의 전개부에서 재가삽화나 죽은 후 내세관삽화, 지주비삽화, 신변잡기삽화가 열녀전의 액자 구성 속에 삽입되어 장편 서사화로 변모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결말부에서는 ‘시신탐색삽화’, ‘신이감응삽화’가 있고, 논평부에서는 ‘길재전생삽화’, ‘충·효·열삽화’, ‘힘겨루기삽화’ 등을 열녀전의 액자에 삽입시켜 보다 흥미로운 서사문학으로 변모되어 있다. 이는 곧 사실의 기록이어야 할 전에서 탈피하여 열녀전의 액자구성 속에 여러 가지 허구적인 삽화를 혼합한 서사문학으로 변모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어 문학사적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김민택의 <열녀향낭전>에서는 향낭의 행적이 점차 서사화, 허구화되는 과

52) 김광순, 앞의 책, 183~185쪽 참조.

53) 향낭과 상낭은 같은 인물이 다르게 불리어진 것이다.

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이옥의 <상냥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옥의 전은 제제면에서 설화문학적 성격이 짙고 전이라고 하나 이야기 내용만으로는 아담이나 민담의 성격을 지니면서 창의성이 돋보여 열녀전의 소설화<sup>54)</sup>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개부의 제재적인 면에서 보면 허구적인 서사문학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옥의 <협효부전>의 경우도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호랑이를 등장시켜 효와 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즉 효성이 지극하면 호랑이도 감동하고 부모의 눈도 뜨게 된다는 민담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협효부전>의 구성방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단락 도입부는 없고 ②단락 서두부의 시작에서 “산골에 한 아낙이 있어 남편이 일찍 죽었다”로 하여 민담형식의 첫머리와 같은 어구를 제시하고 등장인물의 성격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이옥의 작품 중 정격구성 열녀전인 <열녀이씨전>·<생열녀전>·<협효부전>은 열녀 또는 효부라는 것을 제목에 내세운 작품으로서 인물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하고, 전술한 변격열녀전인 <상냥전>은 도입부와 논평부를 취하고 있어 구성방식에서도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sup>55)</sup> 이옥의 전은 정격구성의 열녀전과 변격구성의 열녀전이 상존하며 모두가 허구적인 서사문학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격구성인 <협효부전>과 유사한 소재와 구성을 가진 열녀전으로는 서경창의 <영남효열부전><sup>56)</sup>이 있다. 이 작품은 이옥의 <협효부전>이 4단락 구성방식의 ‘정격열녀전’인데 비해, <영남효열부전>은 5단락으로 확대 변모된 ‘변격열녀전’이란 점은 다르지만 ②—③—④—⑤ 단락의 구성방식과 등장하는 삽화도 매우 흡사하다. 주요인물이 전자는 시어머니인데 후자는 시아버지란 점이 다를 뿐, 남편을 일찍 잃은 열부와 호랑이가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허구적인 삽화로 구성된 서사문학이란 점에서도 두 작품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변격열녀전인 <영남효열부전>은 재가삽화, 음모삽화, 도주삽화, 탐색삽화, 보은삽화, 개안삽화 등으로써 열녀전의 액자 속에 화학적으로 융합시켜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한 방법도

54) 김균태, 앞의 논문(1977), 43쪽; 김광순, 앞의 책, 300쪽.

55) 김균태, 앞의 책, 76쪽.

56) <영남효열부전>에 관해서는 임완혁, 「<영남효열부전>연구」, 『한문교육연구』, 16집(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참조.

유사하다. 이 두 작품은 열녀전의 액자구성에 허구적인 삽화가 혼합되어 전형적인 열녀전의 구성방식에서 탈피하고 전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어간 이러한 유사점등<sup>57)</sup>에 있어 문학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정격열녀전은 조선전기의 열녀전에 비해 근대적인 문예사조의 영향을 받아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3단락 변격열녀전은 고착된 정격열녀전에 비해 자유롭게 감상하고 상상할 수 있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더욱 발전된 장르의 변모가 나타나고 있음은 한국 서사문학은 물론, 한국 문학사 발달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가 있다.

## V. 결론

이상으로 본문에서 논의한 것을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을 ‘정격구성’과 ‘변격구성’으로 나누고 이들 구성에 따라서 전자를 ‘정격열녀전’, 후자를 ‘변격열녀전’으로 명명하여 양분할 수 있다. 연구대상 작품 98편중에 ‘정격열녀전’이 73편, ‘변격열녀전’이 25편으로, ‘변격열녀전’은 다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이 17편,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이 8편으로 양분된다.

둘째,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은 『사기』 「열전」 체에서부터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4단락 구성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조선전기는 ‘정격열녀전’으로 형성되었고 조선후기는 ‘정격열녀전’이 많이 창작되긴 했지만, 한편으로 당시의 근대적 사고와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 활성화된 문풍에 편승하여 ‘변격열녀전’이 파생되었음을 밝혔다. ‘변격열녀전’은 다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과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으로 양분되면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은 작자의 저작 동기와 입전 의도까지 서술하고 있고,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은 독자의 사고와 상상이 자유로울 수 있어서 전자를 ‘닫힌 구조’, 후자를 ‘열린 구조’임을 밝혔다.

셋째, 정격구성의 열녀전은 전통적인 4단락 구성방식으로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

57) 강영숙, 앞의 논문, 55~59쪽 참조.

은 열녀전의 구성방식을 고수한 데에 반해, 변격구성의 열녀전은 조선후기부터 시작된 근대적인 성향으로 발달된 당시 문풍의 영향에 편승하여 허구적인 에피소드의 삽입 등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작자의 서술의식과 창의성이 들어나면서 전이 사실성에서 벗어나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넷째, 조선후기의 정격구성 열녀전은 조선전기의 정격구성 열녀전에 비해 근대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모를 보인다. 또한 변격구성의 열녀전은 고착된 정격구성의 열녀전보다 더욱 허구성이 가증되어 열녀전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하고, 이는 한국 문학발달사적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주장했다.

다섯째, 변격구성의 열녀전은 5단락으로 확대 혹은 3단락으로 축소되는 구성방식으로 한국서사문학 발달과정에 있어서 사실의 표현이어야 할 열녀전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됨으로써 설화와 소설에 미친 문학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 참고문헌

- 『삼국사기』; 『고려사』; 『태종실록』; 『세종실록』; 『동문선』; 『가정문집』.  
 강만길(외), 『한국사』. 서울: 한길사, 1994.  
 강영숙, 「조선후기 열녀전의 유형과 의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강진옥,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2, 56~116쪽.  
 고영진, 「조선사회의 정치 사회적 변화와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8, 1995, 79~98쪽.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서울: 탐구당, 1994.  
 김경미, 「개화기 열녀전연구」.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2002, 187~209쪽.  
 김경미, 「열녀전을 통해본 전통부부윤리의 문제」. 『동양한문학연구』 제16집, 2002, 3~26쪽.  
 김광순, 『고소설사』. 서울: 새문사, 2006.  
 김광순, 「한국의인문학의 사적 계보와 성격(上)」. 『어문학』 16, 한국어문학회, 1967.  
 김균태, 『문집소재전작품전집』. 서울: 계명문화사, 1986.  
 김균태, 「이옥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김성우, 「조선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8, 1995, 19~68쪽.

- 변태섭, 『한국사통론』. 서울: 삼영사, 1986.
- 성현경, 『<열녀함양박씨전>과 <열녀함양박씨전병서>의 구성』. 서울: 동화문화사, 1981.
- 소재영, 「전의 근대문학적 성격」. 『근대문학의 형성과정』.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 우쾌제, 『한국가정소설연구』. 서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 이경우, 「문집소재 전의 변모양상」. 『한국판소리고전문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 205~225쪽.
- 이대형, 「18세기 열녀전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이동근, 「조선후기 실존인물의 ‘사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숙인, 「열녀담론의 철학적 배경: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보는 열녀」.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서울: 월인, 2002, 36~55쪽.
-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삼강행실도』에서 조선후기 <열녀전>까지」. 『진단학보』 85호, 1998, 163~183쪽.
- 이혜순, 「조선조 열녀전연구」. 『성곡논총』 30집 1권, 성곡학술문화재단, 1999, 95~149쪽.
-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서울: 월인, 2002.
- 임유경, 「이옥의 열녀전 구성방식과 열 관념」.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서울: 월인, 2002, 315~343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서울: 지식산업사, 1988.
- 조태영, 「전 양식의 발전 양상에 관한 연구」. 『국문학연구』 61,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연구회, 1983, 202~225쪽.
- 진단학회, 『한국사: 근세전기편, 근세후기편』. 서울: 을유문화사, 1962.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1997.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서울: 월인, 2002.
- 한의승, 「성혼과 송익필의 ‘은아전’ 서술양상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통권25호, 2004.
- 홍인숙, 「17세기 열녀전연구」. 『한국고전연구』 7집, 2001, 95~117쪽.
- 홍인숙, 「조선후기열녀전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황인옥, 「17·18세기 실학자의 烈女觀에 대한 一考察: ‘이익·박지원·정약용을 중심으로」. 효성여대 대학원석사논문, 1993.

### 국 문 요약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을 ‘정격구성’과 ‘변격구성’으로 나누고 이들 구



성에 따라서 전자를 ‘정격열녀전’, 후자를 ‘변격열녀전’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대상 작품 98편중에 정격열녀전이 73편, 변격열녀전이 25편으로, 변격열녀전은 다시 5단락의 확대변격열녀전이 17편이고, 3단락의 축소변격열녀전이 8편이다.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은 『사기』 「열전」 체에서부터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4단락 구성방식을 답습한 것으로 조선전기는 정격열녀전으로 형성되었고 조선후기는 정격열녀전이 많이 창작되긴 했지만, 한편으로 당시의 근대적 사고와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 활성화된 문풍에 편승하여 변격열녀전이 파생되었음을 밝혔다. 변격열녀전은 다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과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으로 양분되면서, ‘5단락 확대변격열녀전’은 작자의 저작 동기와 입전 의도까지 서술하고 있고, ‘3단락 축소변격열녀전’은 도입과 논평이 없는 구성으로서 독자의 사고와 상상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를 ‘단한 구조’, 후자를 ‘열린 구조’라고 하였다.

정격열녀전은 전통적인 4단락 구성방식으로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온 열녀전의 구성방식이 조선전기까지는 잘 고수하였으나 조선후기부터는 이를 탈피하려는 작품이 등장하는 데에 반해, 변격열녀전은 조선후기부터 시작된 근대적인 성향으로 발달된 당시 문풍의 영향에 편승하여 허구적인 에피소드의 삽입 등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작자의 서술의식과 창의성이 드러나면서 사실의 기록이어야 할 전이 사실성(寫實性)에서 벗어나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조선후기의 정격열녀전은 조선전기의 정격열녀전에 비해 근대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변격열녀전은 고착된 정격열녀전보다 허구성이 더욱 더 가증되어 열녀전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는 양상을 고구함으로써 열녀전 구성방식의 변모와 문학사적 의의를 밝혔다. 변격열녀전은 5단락으로 확대 혹은 3단락으로 축소되는 구성방식으로 한국서사문학 발달과정에 있어서 사실의 표현이어야 할 전이 허구적인 서사문학으로 변모되어 열녀전이 설화와 소설에 미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는 것을 말하였다.

● 투고일 : 2007. 4. 9.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구성방식(Formative method), 문학사적 의미(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열녀전(Yeollyeojeon), 정격열녀전(*Jungkyuc Yeollyeojeon*), 변격열녀전(*Byungyuc Yeollyeojeon*).